**韓·호주 외교·안보 수장 한자리에…호주 "대중견제 참여" 요구한 듯**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091323801> 한경, 2021.09.13

송영찬 기자

**2+2 회의서 중국 문제 논의  
호주, 中 겨냥 "규범 저해 규탄"  
양국 연합훈련 늘리기로 합의**

미국의 대중(對中) 견제 노선 핵심 국가로 꼽히는 호주의 외교·국방장관이 동시 방한해 한국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외교·국방장관(2+2) 회의 모두발언에서는 중국을 겨냥해 ‘경제적 압박’ ‘외세의 간섭’ 등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했다. 호주가 대중 견제에서 한국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피터 더튼 호주 국방장관은 13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호주 외교·국방장관(2+2) 회의에서 “역내에서 증폭되는 전략적 도전은 우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을 겨냥한 듯 “양국 모두 경제적인 압박, 외세의 개입, 사이버 공격에 익숙하다”며 “역내에서 군사 재무장과 (군사) 역량 현대화가 무서운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리스 페인 호주 외교장관은 2+2 회의가 끝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역내에서 규범을 저해하는 행위는 강력히 규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국 장관들은 이날 2+2 회의에서 중국 문제를 논의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더튼 장관은 ‘중국에 대해 강압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한국 정부도 이 같은 인식을 공유하느냐’는 질문에 “중국은 양국 모두에 중요한 외교적 요소”라며 “안보와 주권을 지킨다는 것은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라고 답했다.

더튼 장관은 지난 8일엔 “중국 관료들의 수사가 호전적이고 강압적으로 변해 마치 독일 나치를 연상케 한다”며 강도 높게 중국을 비판한 바 있다. 페인 장관도 “대외 관계를 추진할 때 어떤 주권 국가라도 국익을 최우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중국을 겨냥했다. 두 장관은 이날 6·25전쟁 당시 경기 가평전투를 재차 언급하며 한·호주 양국 간 동맹을 강조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호주는 이날 함께 참여하는 연합군사훈련을 늘리는 데도 합의했다. 한국은 내년 호주 공군이 주관하는 ‘피치 블랙’ 연합훈련에 처음 참가한다. 해군은 지난 7월 중국 견제 성격의 해상 연합훈련인 ‘탤리스먼 세이버’에 사상 처음으로 참여했고 뒤이어 ‘퍼시픽 벵가드’에도 참여한 바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한국과 호주군이 매년 함께 참여하는 연합훈련은 7개에 달한다”고 말했다.

호주 외교·안보 수장의 동시 방한은 한국의 대중 견제 노선 참여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호주는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협의체)와 첩보동맹 ‘파이브아이즈’의 회원국으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주도의 대중 견제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는 지난 2일 파이브아이즈에 한국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파이브아이즈 가입에 관한 질문에 “미국 의회에서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 **호주 "한국과 중국에 대항"...왕이 방한 코앞서 더욱 난처한 정부**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91320280002744> 한국일보, 2021.09.14

조영빈 기자

미국 못지않게 중국과 불편한 관계인 호주가 중국 견제를 위한 한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13일 서울에서 열린 ‘한ㆍ호주 외교ㆍ국방(2+2) 장관회의’가 무대가 됐다. 하필 이튿날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한국을 찾는 터라 우리 정부로선 곤혹스러운 장면이 연출된 것이다.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2+2회의에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 호주 측에선 마리스 페인 외무장관과 피터 더튼 국방장관이 각각 참석했다. 양국은 2013년 2+2회의를 처음 개최한 이후 격년으로 열고 있다.

호주는 이날 회의 내내 ‘중국 견제’ 의도를 숨기지 않으며 한국의 동참을 은근히 압박했다. 페인 장관은 “우리는 민주주의적 가치를 공유한다. 국제적 규칙과 규범에 헌신한다”고 했다. 또 “우리는 자유 무역과 개방 무역을 옹호하고 다자주의 가치를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주의 가치 공유’는 미국이 동맹국들에 중국 대응 참여를 권유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이다.

더틴 장관도 회의 직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한국과 호주는 중국에 대항해 당연히…”라고 한 뒤 잠시 말을 끊었다가 “중국은 중요한 요소로, 중요한 회담 주제로 논의될 수밖에 없다”면서 중국 문제가 이번 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졌음을 시사했다.

다만 대중 방어 성격의 다자 협의체 쿼드(Quad) 및 군사정보 공유 동맹체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에 한국 참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페인 장관은 “현재 양자 간 관계도 있고 2+2회의를 통해 효율적으로 역내 이슈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국과 호주 관계는 지난해 호주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기원을 밝히기 위한 국제적 조사를 촉구한 이후 급격히 악화했다. 특히 중국은 호주의 대표적 수출품인 밀, 와인, 보리 수입을 제한하며 고강도 무역 보복 조치를 단행했다. 경제 보복 직격탄을 맞은 만큼 한국도 국제사회의 대중 견제에 힘을 보태 달라는 공개 메시지를 발신한 셈이다.

우리 정부는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 않으며 발언 수위를 조절했다. 호주의 입장에 한국도 동의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서 장관은 “양측이 공감한 사안은 인도ㆍ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 항행과 비행의 자유 보장이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원론적 답변만 했다. 남중국해 등에서의 ‘항행의 자유 원칙’은 한국의 기존 원칙임을 강조하면서 서방국가들의 중국 대응 흐름과 구분한 것이다. 왕 부장이 14일 방한하는 것도 정부가 일반론만 부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보인다.

### **中 견제 '美·호주·인도·日' 24일 백악관서 첫 대면회의**

<https://www.ytn.co.kr/_ln/0104_202109150222274649> YTN, 2021.09.15

강성옥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4일 백악관에서 사상 첫 대면 '쿼드'(Quad) 정상회의를 개최합니다.  
  
쿼드는 미국과 호주, 인도, 일본이 참여하는 안보 협의체로 사실상 중국 견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를 맞이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쿼드 정상회의는 오는 21일 시작하는 유엔총회를 위해 각국 정상이 미국을 방문하는 가운데 열립니다.  
  
쿼드 정상이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바이든 행정부는 외교장관이 참석하는 협의체로 운영되던 쿼드를 아예 정상급으로 격상한 뒤 지난 3월 화상으로 첫 정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이번 대면 쿼드 정상회의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21세기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다자관계를 구축하는 등 인도·태평양 지역 관여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제와 관련해선 "코로나19 대응, 기후 위기 해결, 신기술과 사이버 협력,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 촉진 등에서 연대를 강화하고 실질적 협력을 증진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쿼드가 '쿼드 플러스'(Quad Plus)로 확대될 경우 한국과 뉴질랜드, 베트남 등의 추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 미·영·호주 정상, 안보협력체 발족에 "인도태평양 안정 도움"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1/09/893578/> 매일경제, 2021.09.16

미국과 영국, 호주의 정상은 15일(현지시간) 3국의 새로운 안보 파트너십인 '오커스'(AUKUS) 발족에 대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3국 정상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규칙에 기초한 국제 질서라는 지속적 이상과 공동 약속에 따라 파트너 국가와의 협력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외교, 안보, 국방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성명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명의로 발표됐다.

오커스는 인도태평양에서 안보 협력 강화와 정보기술 공유의 심화를 목표로 한 협력체로, 특히 첫 구상으로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지원키로 했다.  
  
정상들은 성명과 기자회견에서 중국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강화, 호주와 중국의 갈등 심화 등과 맞물려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는 목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3국 정상은 오커스 발족과 관련해 수십 년간 구축된 3국 간 국방 분야의 깊은 유대를 언급하며 연합 능력과 상호작전 운영성을 향상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초기 노력은 사이버 능력, 인공지능, 양자 기술, 해저 능력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화상으로 열린 공동 회견에서 "우리는 장기적으로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이 긴요하다는 점을 인식한다"며 "3국의 협력을 심화하고 공식화하기 위해 또 다른 역사적 조처를 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존슨 총리는 "과학과 기술의 최첨단에서 영국의 위치를 강화할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하게는 3국이 훨씬 더 긴밀히 협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리슨 총리는 좀더 복잡해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새로운 3자 파트너십이 구축된 것이라며 도전 과제에 대응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3국 정상은 호주의 핵잠수함 보유 지원이 핵확산을 돕는다는 비판이 나올 것을 의식한 듯 "3국은 글로벌 비확산에서 리더십 유지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리슨 총리도 "분명히 하자. 호주는 핵무기 획득이나 민간용 핵능력 확립을 추구하고 있지 않다"며 "우리는 핵 비확산 의무를 계속 충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핵잠 개발은 시작'…호주, 中견제 위해 미군 배치 확대·미사일 강화

[https://www.fnnews.com/news/202109170951323308 파이낸셜뉴스 2021.09.17](https://www.fnnews.com/news/202109170951323308%20파이낸셜뉴스%202021.09.17)

원태성 기자

미국과 영국, 호주가 대중국 견제를 위해 본격적으로 손을 잡은 상황에서 호주는 더 많은 미군이 자국 영토에 배치될 것임을 암시했다.  
  
AFP통신·선데이 모닝 헤럴드 등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간) 피터 더튼 호주 국방장관은 워싱턴DC에서 미·호주 외교·국방 장관 '2+2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미사일 개발을 비롯해 미군 추가 배치 등 미국과의 협력을 '상당히' 증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과 영국이 호주와 함께 지난 15일 '오커스(AUKUS)'라고 명명된 3국 안보 파트너십 체결을 발표하면서 최소 8척의 핵잠수함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호주의 콜린스급 잠수함 6척이 2038년부터 운행을 종료하는 가운데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은 2040년이 되어서야 완료되기 때문에 호주는 군사 공백을 메워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  
  
호주의 선택은 미군 추가배치를 비롯해 극초음속 미사일, 해저 드론, 장거리순항미사일의 국내 배치다.  
  
더튼 장관은 호주 북부 도시 다윈에서 순환 근무를 하는 미 해병대의 수가 더 증가하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올해 이 지역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제한이 있지만 약 2200명의 미 해병대가 배치될 예정이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장관은 호주에 배치될 미 해병대의 정확한 숫자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호주 주둔 미군을 확대 배치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더튼 장관은 "미국과의 협력으로 우리의 해상능력뿐만 아니라 항공능력을 포함해 모든 군사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호주가 장거리 순항미사일인 토마호크를 배치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아울러 호주는 슈퍼호넷 전투기에 탑재되는 대함미사일, 음속의 최소 5배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는 극 초음속 미사일과 해저 드론을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을 예정이라고 선데이헤럴드모닝은 전했다.  
  
호주 ABC는 미국이 폭격기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미군 전투기와 함께 정비요원, 전투요원들을 호주에 더 많이 배치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미국측은 호주와의 협력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임을 재차 강조했다.

오스틴 장관은 "우리는 중국과 건설적이고 결과 지향적인 관계를 추구했지만 앞으로 그들이 이미 확립된 국제질서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중국은 지난 몇달 동안 호주가 경제적 보복과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미국은 호주가 홀로 싸우게 두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중국은 앞서 미국과 영국이 호주에 핵잠수함 개발을 지원해준다는 발표에 "지역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군비경쟁을 심화시킨다"며 크게 반발했다.

# '오커스 출범'에 중국 반발 예상했지만…동맹서도 쏟아진 불만

<https://www.yna.co.kr/view/AKR20210917019000071?section=international/all> 연합뉴스, 2021.09.17

류지복 기자

## **중국 "시대착오적", 프랑스 "뒤통수 맞았다"…EU선 '전략적 자율성' 또 언급**

## **미, 호주와 안보회담·영국과는 정상회담으로 밀착…프랑스 달래면서 표정 관리도**

미국과 영국, 호주가 지난 15일(현지시간) 대중국 견제 안보 동맹으로 평가받는 오커스(AUKUS) 발족을 깜짝 발표한 이후 각국의 희비와 반응이 크게 엇갈린다.

오커스 3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들뜬 분위기지만 직격탄을 맞은 중국은 예상대로 강하게 반발했다.

미국의 전통적 우방 역시 심기가 편친 않은 표정이다. 유럽연합(EU)은 자체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며 또다시 자강론이 대두되는 모양새이고, 77조 원짜리 잠수함 사업을 빼앗긴 프랑스는 말 그대로 분기탱천했다.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와중에 불의의 일격을 당한 중국의 반응은 거칠었다.

자오리젠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소그룹, 소집단을 만드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미국과 영국이 호주에 핵 추진 잠수함을 지원키로 한 데 대해 지극히 무책임한 처사라고 날을 세웠다.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은 "냉전 사고방식과 이념적 편견을 떨쳐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호주가 지원받은 핵추진 잠수함은 중국 견제용 작전에 투입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못한 미국의 동맹국에선 균열의 조짐이 보인다.

프랑스는 분개했다. 프랑스는 호주에 최대 12척의 디젤 잠수함을 공급하는 560억 유로(77조 원) 규모의 계약이 허공으로 날아간 상태다.

장이브 르드리앙 외교장관은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다"며 호주에 배신당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미국을 향해서도 관계가 불편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할 만한 일이라고 불만을 쏟아냈다.

주미 프랑스 대사관은 미국이 영국 식민지에서 벗어난 독립전쟁을 기념하는 축하 행사를 17일 열기로 했다가 취소했다. 볼티모어의 구축함에서 예정된 리셉션은 축소됐다. 대사관은 "좀 더 분별력이 생겼다"고 말했다.

EU의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협력을 강화하는 자체 전략을 공개했다. 중국의 영향력 억제를 위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오커스의 그늘에 가려 제대로 주목받지 못하는 인상이다.

보렐 고위대표는 EU가 오커스에 대해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서 "우리는 다른 이들이 하듯이 자력으로 살아남아야 한다"고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했다.

EU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지난달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강행해 대혼선이 빚어진 후 터져 나온 'EU 자강론'과 맞물려 EU 입장에선 또 한 번 미국으로부터 소외됐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지점이다.

호주의 이웃 나라인 뉴질랜드는 오커스 출범을 환영한다고 밝혔지만 야당에선 3국 동맹에 뉴질랜드가 빠져 우려된다는 반응을 내놨다.

오커스 3국은 새 안보 파트너십 구축을 계기로 한층 밀착하는 분위기다.

당장 미국과 호주는 이날 미국에서 외교·국방장관 2+2 회담을 하고 "확고부동한 동맹"임을 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를 백악관으로 불러 회담한다.

미국으로선 아프간 철군 이후 중동이란 늪에서 빠져나와 중국 견제에 더 큰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결과물로 보여준 것이 오커스다. 영국 역시 힘든 브렉시트를 통해 EU의 굴레에서 벗어난 이후 인도태평양으로 영역을 넓히며 위상 제고를 꾀할 기회로 여길 수 있다.

반면 이들 3국은 동맹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며 프랑스의 반발 진화에 신경을 썼다.

프랑스 유력지에선 관련 보도 전까지 사전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기사가 나왔지만,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프랑스 지도자들과 미리 접촉했다는 다른 설명을 내놨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유럽 국가의 중요한 역할을 환영한다"며 "특히 프랑스는 필수적인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이번 합의가 가져올 이익을 따지며 표정 관리를 하는 분위기 역시 감지된다.

벤 월러스 영국 국방장관은 영국 국방산업에 활력이 될 것이라면서도 프랑스의 반발에 대해선 결정은 호주가 내린 것이라고 한 발 뺐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잠수함 사업 결정을 바꾼 데 대해 "생각이 아니라 필요가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이번 일로 프랑스와 관계에 타격이 있음은 인정했다.

AP 통신은 이번 합의 이후 오커스 동맹이 인도태평양은 물론 이를 넘어선 지역에서 관계의 재편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